

단색화를 보는 세가지 시선

이우환 박서보 등이 참여한 '단색화 5인의 걸작전'에서 권영우와 김민정 개인전까지.

국내 단색화 열기가 이어지면서 서울 인사동과 삼청로 일대 미술벨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련 전시가 잇따르고 있다. 인사동 노화랑에서는 단색화 대표주자인 이우환(79) 박서보(84) 하종현(80) 윤희근(1928~2007)에 1.5세대로 분류되는 김태호(67) 5인전이 열리고 있다. '걸작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핫한' 작가들의 걸작 20점을 엄선했다. 1년 전 '단색화의 예술'전을 열며 단색화 열풍에 불을 지핀 국제갤러리에서는 권영우(1926~2013) 개인전이 열린다.

당시 그룹전에는 끼지 못했지만 지난 5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막한 '한국의 단색화'전에 포함돼 큰 인기를 끌었던 권영우의 1970~1980년대 작품이 대거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조계사 인근에 있는 OCI미술관에서는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김민정(53)의 첫 귀국전이 열린다. 무려 24년 만의 국내 전시다.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단색화 관련 전시는 단색화의 외연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단색화는 1970년대 시작된 독특한 한국 추상회화 양식으로 한두 가지 무채색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우환과 박서보로 대표되는 대표 주자부터 숨겨진 작가들까지 한꺼번에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노화랑 기획전에서는 핫한 작가들의 핫한 작품을 엄선했다. 박서보 작품 6점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1970년대 '묘법' 시리즈가 나왔고, 이우환의

노화랑, 이우환·박서보 등

'단색화 5인 걸작'전 열어

국제갤러리 권영우 개인전

OCI미술관 김민정 재조명

1970년대 작품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가 포함됐다. 마대 뒤에서 물감을 밀어 작업하는 하종현 작품도 2점 걸렸다. 반복과 수행이라는 단색화의 특징과 맥을 이어가면서 '별집' 모양으로 격자 작업을 펼치는 김태호 작품 6점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30일까지. (02) 732-3558

단색화 열풍을 채 느끼기도 전에 작고한 권영우 전시도 올림이 강하다. 한지를 찢고, 자르고, 뚫는 행위를 통해 '종이 화가'라는 별칭을 얻은 그다. 틈 사이로 먹의 번짐과 스며들이 일품이고, 그 안에 리듬감이 환상적이다. 전시는 12월 6일까지. (02) 735-8449

김민정은 1991년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떠난 후 줄곧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다. 광주 출신인 그는 어려서부터 서예·한지와 친했고 이국에 있으면서도 한지를 촛불이나 향불로 태운 뒤 찢거나 오려 배접한 콜라주 회화 실험을 계속했다. 한지의 곱고 편안한 결이 여성 작가의 섬세한 정서와 닮았다. 전시는 12월 27일까지.

(02) 734-0440

이향휘 기자



박서보 '묘법 No.16-79' 100x80.4cm, Pencil and Oil on Hemp cloth, 1979